

두경부 악성종양환자의 진단 및 치료후 추적관찰에 있어서의 PET scan의 유용성

이장한* · 심운상 · 이용식 · 이국행
원자력병원 이비인후 - 두경부외과

배 경 : PET scan은 두경부 악성종양의 조기진단과 원발 혹은 전이성 두경부종양의 치료후 추적관찰에 있어 CT나 MRI에 비해 매우 높은 민감도를 갖는 것으로 밝혀져있다.

목 적 : 본 연구는 원발부위가 불분명하거나 초치료 후 재발여부가 불분명한 두경부 악성종양 환자의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에 있어 PET scan이 얼마나 유용한가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97년 8월부터 '98년 7월까지 본원 이비인후과를 방문한 악성종양환자 57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들을 크게 세 군으로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제 1군은 원발부위불명암으로 진단되었던 5명, 제 2군은 초치료 개시전 치료계획 수립을 위한 촬영을 요했던 14명, 제 3군은 원발부위 치료후 추적관찰중 재발 내지 전이여부가 확실했던 38명을 포함시켰다. 이들은 18 F-Fluorodeoxyglucose(18F-FDG) PET scan을 시행하였다.

결 과 : 제 1군 환자중 3명(60%)의 원발부위가 규명되었고, 제 2군 환자가운데 5명(35.7%)에서 원격전이가 의심되는 소견을 보여 이에 대한 평가 후 수술 혹은 항암치료여부를 결정하였다. 제 3군 환자들 중 18명(47.4%)에서 재발 내지 전이가 의심되는 소견을 보였다.

결 론 : 1) 원발부위불명암의 경우 진단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2) 초치료 시작전에 원격전이 및 국소전이여부를 판단하여 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할 수 있었다. 3) 원발부위치료후 추적관찰중 재발여부를 확인하는데 참고가 되었다. 4) 아직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으나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한다면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경부 후방에서 발생한 거대종물 치험 1례

유영삼 · 김영민 · 이종엽* · 강무완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상계백병원 이비인후과학교실

경부 종괴는 전 연령층에서 일어나는 흔한 질환으로 그 진단과 치료에 있어 연령, 종괴의 위치, 종괴의 성상, 종괴주위구조물 등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연령은 출생시부터 15세까지를 소아기, 16세부터 40세 까지를 전반 성인기, 40세이후를 후반 성인기로 나눌 수 있고 각 연령 군에서 경부종물의 빈도는 소아기와 전반성인기에서는 염증성 종괴, 선천기형, 신생물, 외상성 종괴의 순이며, 후반성인기에서는 신생물, 염증성 종괴, 선천기형, 외상성종괴 순으로 알려져 있다. 종괴의 위치는 소아에서는 경부중앙과 중앙부, 전반 성인기에서는 경부전삼각부, 후반 성인기에서는 경부후삼각부에서 흔하며 악성종양의 전이는 염증성병변과 비슷하게 임파배출로를 따른다고 알려져있어 이들의 감별시 유의해야 한다. 종괴에 대한 이학적 검사는 가장 중요한 진단 과정의 하나로 종괴의 위치, 크기, 주위조직과의 유착 유무, 또 다른 종괴의 동반성 유무, 종괴자체의 박동음이나 잡음 등을 살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종괴 뿐 아니라 두경부 전반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어서 진단적 내시경 검사, 조직생검, 각종 방사선학적 검사, 방사선 동위원소 검사, 조직배양 및 항생제 감수성 검사 등이 필요하다. 본원에서는 후반성인기에 발생한 비교적 빠른 성장을 보인 경부후방의 종물을 상기의 방법으로 진단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절제, 합병증 없이 치유하였기에 문헌고찰과 더불어 보고하는 바이다.

주타액선 종양 315예의 임상적 고찰

채명석* · 김상호 · 백낙환